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⑫

갈대와 게



단원 김홍도(1745 ~?)의 해담노화도(蟹食蓮花圖). 게(蟹: 해)가 갈대꽃을 탐한다는 그림으로 과거시험을 앞둔 사람에게 장원급제를 기원하며 그려주던 전통적인 그림이다.

옛날, 가난한 농사꾼의 어린 아들이 갑자기 열병에 걸려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급히 약방으로 달려갔다.

약방 주인은 “열을 내리는 데는 영약이 좋은데, 은(銀) 10냥은 있어야 줄 수 있디네.”

농부는 돈이 없어 약을 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눈물만 푹푹 흘렸다. 이 때 한 거지가 그 집에 밥을 구걸하러 들어왔다. 거지가 농부에게 물었다.

중국에서는 과거 합격을 기원
부부해로, 자손번창 의미 변해

농부는 거지에게 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영양각 말고도 열을 내리는 데 좋은 약이 있습니다.” 농부는 거지를 따라 갈대가 무성한 저수지로 갔다. 거지는 갈대 뿌리를 캐서 농부에게 주었다. 농부는 갈대 뿌리를 꼭 달아서 아이에게 먹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열이 떨어지면서 정신이 바로 돌아왔다.

농부는 “어떻게 갈대 뿌리가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는 줄 알았나?” “저희들은 열이 나면 갈대 뿌리를 달여 먹습니다. 우리는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에 걸리거나 열병에 걸리는 수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갈대 뿌리를 달여 먹으면 신기하게 낫습니다.”

그 뒤로 갈대 뿌리는 열을 내리는 약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한다.

게는 늦여름과 초가을에 이르면 매미처럼 허물을 벗어 해(蟹)라 한다. 근해의 계간과 호수에서 나는데 여덟 개의 다리와 두 개의 가지 다리로 굴곡, 횡행하는 까닭에 일명 과해(跨蟹)라고도 한다.

갈대와 게를 함께 그린 김홍도의 그림은 1916

년 테라우치종독(寺內正毅)에 의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그림 중에 포함되어 있다. 물품을 배경으로 한 쌍의 게를 수묵(水墨)으로 표현한 그림은 김홍도의 작품 외에도 심사정(沈師正; 1707~1769)이나 최북(崔北; 1712~1786경)의 소품들도 알려져 있다.

이들 중에는 갈대가 아닌 일반 물품에다가 송사리 등 작은 물고기들을 함께 그린 것들도 있는데 중국 명(明)나라의 서위(徐渭; 1521~1593)를 모방해서 그린 작품과,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의 배관기(拜觀記, 남의 글·편지·작품·소중한 물건 등을 공경하는 뜻을 가지고 보고 기록한 것)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갈대는 한자로 ‘로(蘆)’다. 게가 갈대를 물어 전하면 ‘전로(傳蘆)’인데, ‘전려(傳臚)’란 말에서 나왔다. 로(蘆)와 려(臚)는 우리말 음으로는 달라도 중국음은 모두 ‘루’다. 전려는 예전 과거 시험을 볼 때 합격자를 발표하던 의식이다.

예전 과거 시험은 각 지역 향시(鄉試)에서 합격한 사람만 중앙으로 올라가 전시(殿試)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발해(發解)다. 해(解)와 게를 뜻하는 해(蟹)는 음이 같다. 그래서 게와 갈대를 함께 그린 그림은 과거에 합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와 갈대 그림의 의미는 위와 같은데, 갈대와 게그림은 후대에 그 의미가 변한다.

글자 그대로 게는 해(蟹), 갈대는 로(蘆)인데, 두 글자가 합쳐서 해로(偕老), 즉 부부가 평생을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변한다.

‘해로(偕老)’는 <시경>에 나온 말로 <폐풍>의 격고편에 고향을 등지고 멀리 떨어진 전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한 병사가 집에 있는 아내를 그리워하는 애절함이 묻어있는 시다.

“죽거나 살거나 함께 고생하자 당신과 굳게 언약하였지. 고운 손 꼭 붙잡고 오순도순 늙어가자... [死生結鬪 與子成說 執子之手 與子偕老]” 라는 뜻이다.

게가 낳는 수많은 알은 자손번창을 뜻한다고 한다.

한 가지 그림이 가진 의미는 이렇게 세월에 따라 변해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하기도 한다.



동화사 포교국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76 마지막 북소리



하루가 저무는 시간. 산문에서 북소리가 들려온다. 저녁예불이다. 부처님 앞에 서는 시간. 우리 모두 부처라 했던가. 각자의 앞에서는 시간이다. 오늘은 내 앞에 서있는 나를 볼 것인가. 잔잔한 호수 위에 바람이 물결을 그리듯 한 줄기 북소리가 가슴을 흔든다.

북소리가十方(十方)으로 날아가고 부처들이 쏟아내는 뜨거운 목소리가 범당을 태운다. 부처를 만나지 못한 부처들이 두 무릎으로 다시 범당을 짓고, 흔들렸던 가슴은 내일의 북소리를 기다린다. 내일을 기다리는 일은 간절하고 간절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북소리가 이 세상에서 듣는 마지막 북소리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내일’은 모두가 기다리는 ‘오늘’이고, 오늘은 간절히 기다렸던 ‘내일’이다. 내일 다시 북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장** ⑩ 조선 소요태능 선사의 ‘계유 범사에게 보임(示繼雨法師)’

사랑하고 분별해선 깨달음에 이를 수 없어

火裡紅蓮落故衣 (화리홍련낙고의)
木童收拾滿筐歸 (목동수습만광귀)
古曲無音誰敢和 (고곡무음수감화)
溪邊石女笑微微 (계변석녀소미미)

불 속의 붉은 연꽃 옛 옷에 떨어지는데
떨감하는 아이는 광주리에 가득 주워 가네
옛 곡은 소리가 없는데 누가 감히 화답하라.
시냇가 돌여인이 빙그레 미소 짓네.

소요태능(逍遙太能; 1562~1649) 스님은 대규모 불사를 통해 가람을 조성했으며 대중을 모아 후학 양성에 진력하는 등, 선에 근거한 정법 중흥과 종단과 불법수호를 자신의 역할로 삼았다. 기도 등을 통해 중생구제를 간절히 염원기도 했는데, 스님이 범문하는 자리에는 원숭이도 와서 머리를 숙이고 뱀이 범문을 듣고 허물을 벗는 등 이류중생에게도 그 감화가 미쳤다.

소요태능 스님의 문집인 <소요당집(逍遙堂集)>에는 후학에게 법을 보인 스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의 시는 화두를 통한 깨달음을 읊은 시로 선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상징과 역설을 사용하고 있다. ‘불속의 연꽃’ ‘석녀’라는 시어는 언어도단, 이언절려(離言絕慮)의 경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무영수(無影樹), 무현금(無弦琴), 석녀(石女), 전삼삼후삼삼(前三三後三三), 철우(鐵牛), 니우(泥牛)

등도 주로 쓰이는 선어이다. ‘불 속에 핀 연꽃을 목동이 주워 담는다’ ‘석녀가 웃는다’ 등은 초논리적이다.

이러한 상징과 역설, 초 논리의 수사법은 선시의 중요한 표현 방법으로 선시에 어김없이 등장한다. 이는 선사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그저 읊었을 뿐이기도 하겠지만 사랑하고 분별하는 마음으로는 깨달음에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 획일적이고 동일한 선어와 수사법은 일견 선시의 문학성을 반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으로, 화두로 깨달음을 이룬 수행자가 있다면 이러한 기범의 선시는 필연적으로 작시되어 질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범희선열을 맞보거나 그 가르침을 엿보는 안목은 수행자와 독자의 몫일뿐이다.



원법 스님(운문사·문학박사)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붓 공 사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주)현대에너지텍 2011년 최신행

농협용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